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평화

(눅2:8-14)

서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가장 어둡고 어려울 때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나라가 분열된 상태였고, 왕과 제사장도 여러 명이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의 오심을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평화입니다(눅2:14).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3장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는 것이며,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말씀에 포함된 말씀입니다. ‘기뻐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선택된 자들이며, 구원받은 자들에게 최고의 시간임을 말합니다. 이 참된 성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평화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야 합니다.

1.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 그날임

가.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흑암 세력은 반드시 무너짐을 믿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사탄의 발악에 두려워하거나 속지 않게 하옵소서.

-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가정, 가문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 나의 삶에 모든 문제 유일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 이름을 날마다 선포하는 증인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행4:12).

-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각인되게 하옵소서.

2. 인간의 참 축복을 회복하는 - 그날임

가. 참된 인간 회복을 위해 말씀을 통해 이미 예언된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게 하옵소서(요8:56, 히12:1-2).

-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사 모든 문제해결 하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가진 자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 우리는 속이는 흑암의 역사와 과거 영적 문제에 속지 않고, 오직 언약을 붙잡고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결론: 성탄절은 모든 흑암이 무너지며, 참된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고, 미래를 보장받는 귀중한 축복의 날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엄청난 축복의 문들이 열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사업, 일, 학업,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참된 성탄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